

속 기록

- 회 의 명 : 제375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4. 5. 31(금) 14:00 ~ 16:21
- 장 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
- 출석위원 : 정병국 위 원 장
- 김미라 위 원
- 김진각 위 원
- 배은주 위 원
- 서승마 위 원
- 이훈경 위 원
- 장미진 위 원
- 장인주 위 원
- 정갑영 위 원
- 정정숙 위 원
- 정종열 위 원
- 홍성태 위 원

1. 성원 보고

정병국 위원장 : 제375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2025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등 의결안건 5건, 보고안건 3건 그리고 논의안건 1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보고안건 중 국회지정사업 관련 안건 1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국회지정사업 담당팀과 주관단체의 보고를 통해서 사업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고, 올바르게 집행될 것인지 검토하고, 필요시 위원님들의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지정사업 주관단체가 오후 3시경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김효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자대표로 참석하였고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언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문학지원팀 차건주 대리를 포함한 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위원 12인 중에 12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 선언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정병국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 회의의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전체회의 관련 자료 3쪽입니다. 4월 26일에 개최한 제372차 전체회의에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어서 수정의결 되었고, 서면 개최한 제373차 및 제374차 회의에 상정된 의결안건 4건 모두 원안의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 의결 사항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의 출장 일정으로 인해서 마지막 의결안건이었던 문학지원팀 안건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063호 2024년 문학창작산실 발표지원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김나영 문학지원팀장이 온라인 화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영 문학지원팀장 : 안녕하세요, 문학지원팀 김나영입니다. 2시 30분부터 바로 회의가 있어서 먼저 안건을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를 구합니다.

회의자료 67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학창작산실 발표지원 사업은 현장의 요구에 따라서 기존에 책으로 발간하던 성과요구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서 문학 작가들이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고료 지급 형태의 사업으로 6억원을 배정해 202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고요. 선정작가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진행 경과입니다.

지난 9월 정시공모 의결 시에 추진계획을 의결해 주셨고 저희가 3월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신청건수가 2,316건으로 워낙 많고요. 미발표 작품의 문학적 수준 100%로 평가를 하는 사업입니다. 결격을 제외한 2,077건이 심의대상이었는데요. 세부 장르별로 원고를 모두 읽고 심의를 진행하다 보니 심의기간이 조금 오래 소요가 되었습니다.

69페이지 심의위원 구성입니다.

지금 문학 분야의 담당 위원님이 부재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문학 분야 심의위원 후보단 내에 2배수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했구요. 다만, 평론에 1인씩 분과별로 모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심의결과입니다.

70페이지 표를 보시면 되고요. 총 신청건수 2,316건에서 최종 300건 그리고 예비후보 6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장르별로 1개 분야 당 최대 선정비율 30% 기준을 우선 설정했고 나머지 최대 30%를 충족하지 않는 장르들은 선정 목표건수 배정 후에 동일 비율로 다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 대비 선정률 현황은 지역이 신청비율이 50.6%이고요. 선정비율이 45.3%로 지역균형지원제에 따른 기준비율인 27.1%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무기명 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척과 회피 상황이 많지는 않은데요. 혹시 작품을 읽으면서 어떤 작가라고 추정될 수 있는 작품들은 제척·회피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1건의 회피가 있었고요. 오늘 심의결과가 의결되고 나면 오늘 바로 결과 발표를 진행하고 작품 교정, 교열 등을 마치고 문학광장과 카카오프렌치 등에 작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1059호 2025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성범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5페이지 2025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5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문체부 안으로 확정이 되고 기획재정부로 제출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문체부 안으로 확정되는 것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7페이지부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0월 중기계획의 수립부터 올해 초 작업을 계속하면서 몇 차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문체부와 계속 조정되면서 오늘 버전까지 작업이 완료되었고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문체부 부처(안)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2025년 사업예산의 큰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작지원사업의 지역과 중앙 간 역할 분담을 고려해서 사업을 개선하고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술창작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약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지원 외에 장르별 축제 형태의 사업을 통해서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고 공공미술진흥이나 대관료, 장비 임차 지원 등 창작 여건을 만들어서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간접지원도 계속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개최되는 문화예술세계총회 개최 그리고 세계 속에서 한국문화예술의 위상이 증가함에 따라서 해외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예술가들에 대한 인바운드 레지던시 등을 위한 예산도 신규 반영했습니다.

또 민간 기부 활성화를 위한 문화지표를 개발하고 작년에 개최했던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과 같은 예술을 전 국민이 향유하고 더 나아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자체수입으로는 897억 원, 국고전입, 기금전입 4,990억 원을 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4,431억 원으로 전년대비 총 4.1% 증가했고 그중에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예술창작지원이 766억 원, 예술인력육성 228억 원, 예술가치사회적확산 248억 원, 문화예술향유지원 2,806억 원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에서 세부내역 주요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창작지원 내에 문학창작육성, 시각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창작육성 등 장르별 예산은 총 574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40% 정도 추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장르별로 후속지원 예산을 반영한 게 큰 증가율의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증가율로 보면 시각예술분야가 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공공미술 사업이 시각예술창작육성 안으로 편입이 되면서 반영된 것이 주요 영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글로벌창작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기존 이름은 국제예술교류지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세계총회 개최에 13억 원 그리고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에 13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서 60억 원 가량 편성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인력육성에서는 타 기관으로 재교부되던 사업들이 일부 구조조정이 되었고,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사업과 통합됨에 따라서 감액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서는 예술가치사회적확산 역시 사업의 구성 내용들은 전년과 같거나 거의 유사한데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담심의관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함에 따라서 관련 예산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나무운동 10억 원 증액으로 아트포레스트와 문화지표를 하고자 편성했고요. 민간후원활성화 같은 경우는 메세나협회를 통해서 하는 기업이 후원을 했을 때 함께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문화예술향유지원 같은 경우에는 통합문화이용권이 1인당 지원금 증액이 반영되어 10% 증액된 2,636억 원을 요구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전년도와 동일한 17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총예산 기준으로는 증액 편성을 했지만 이것은 요구안이고 기재부에서는 현재도 계속 건전재정 차원에서 예산 감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문체부(안)을 기재

부로 제출하더라도 계속 감액 또는 조정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공유해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이고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을 할 때도 계속 위원님들께 협의를 드리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숙 위원 :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연 쪽에 그동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자 여쭙는데요. 예술의관광자원화 부분에서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아시아 최대 마켓형 공연예술축제운영지원 SPAF가 그동안 예술경영센터에서 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건가요? 아니면 서로 같이 운영할 예정인가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지금 이 예산은 예술경영지원센터로 지정해서 나가는 예산이고요. 작년까지 SPAF는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 안에 있었는데 올해부터 PAMS와 통합해서 운영함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예술의관광자원화로 옮겨서 편성했습니다.

정정숙 위원 : 결국 예산은 우리 쪽으로 오는 것이지만 활용은 완전히 예술경영지원센터로 넘겨서 일종의 위탁처럼 운영하는 거겠네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그렇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그러니까 기존에도 기금사업으로 있었던 사업이고요. 그것을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줬던 사업인데요. 다만, 기존 편성에 있어서 하나는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속에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합쳤습니다.

정정숙 위원 : 통합해서 예술경영지원센터로 넘기는 것이죠?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정정숙 위원 : 그러니까 증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통합인 것이네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통합을 했는데 약 1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정정숙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보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아닌 것이네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정정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일반회계전입금이 2배 이상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800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500억이 갑자기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해당 예산의 증액 같은 경우는 문체부와 협의하면서 저희가 요구했고요. 문체부에서도 협의를 하면서 500억 증액 편성을 해서 기재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요. 저희가 청

년문화예술패스 같은 경우도 문예진흥기금으로 하다보니까 관련 예산 등을 포함하기 위해서 추가 증액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김진각 위원 : 800억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김진각 위원 : 요구안인데요. 500억 가까이 2배 이상 늘어난 게 이례적인 것 같아서요. 이렇게 요구한 배경이나 일반회계가 이렇게 필요한 이유가 문예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인지?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일반회계전입과 체육기금이나 관광기금전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로 지출하고 잔액에 대해서도 문예기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이 편성해서 사업비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문예기금으로 적립하면 안정적 재원 대책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재원을 요청하고 반영하고자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800억 전체가 기재부에서 승인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수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올해는 800억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진각 위원 : 작년에는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가 배정된 겁니까?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바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작년에 800억을 요구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2배 이상이라 의아해서 여쭙보는 겁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확인하고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안 보다는 부처안이 중요하잖아요? 부처안이 협의돼서 최종적으로 올라간 것이잖아요?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지금 보고를 드리는 자료가 문체부까지 같이 검토한 부처안입니다.

배은주 위원 : 그러니까 요구안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부처안이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협의해서 부처안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예, 그렇습니다.

배은주 위원 : 그래서 결국 부처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2024년도 저희 부처안이 얼마만큼 증액에 반영되었는지 %를 알고 싶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그것도 김진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 저는 하시는 일이니까 부처안이 이렇게 담기면 이중에서 어느 정도를 반영할지 대략 알 수 있지 않나요? 그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기재부에서는 현재 문체부로 실링을 쫓고 그 실링을 반영한 예산이기는 합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연락을 받은 바로는 내년도 재정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감축 기조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렵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금 짜놓은 부처안대로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부는 감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지금 확인이 되었는데요. 작년 일반회계는 300억을 요구했었고 그대로 반영되었고요. 작년 요구 사업비는 4,259억에서 4,256억 원이 반영되어서 부처안으로 요구했던 게 거의 다 수용되었습니다.

배은주 위원 :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올해 장관님이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돼서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안이 증액되었고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1060호 2024년 소통·윤리인권소위원회 회의 결과 및 소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이훈경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통·윤리인권소위원회의 명칭 변경이었습니다. 지난 달 회의 때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렸고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한 바가 있어서 2가지 명칭 중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라고 확정을 지었고요. 창작 안에는 지원과 창작과정 등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해서 그 안에 소통에 관한 것들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로 소통의 장을 여는 게 연극분야인데 6월에 대한민국연극제 개막식에 원로예술인들과 지부장님들을 모시는 소통의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무용과 음악은 아직 축제 일정이 맞지 않아서 별개로 자리를 마련하여 7월 초에 진행하기로 했고, 장애예술인 쪽은 9월에 축제가 있어서 그때 진행하기로 했고, 전통예술은 조금 더 검토 후에 하반기에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통의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되었는데 그날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조금 있어서 이것은 오늘 논의사항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내부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논의가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진행과정을 위원들과 공유하지 못한 점 그리고 지금 이것을 시작해야 되는데 타당성과 시기의 적절성 등을 다 같이 한번 논의해 주십사 안건으로 올리는 바입니다. 소위원회는 이 정도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2024년 소통·윤리인권 소위원회 회의 결과 및 소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네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1061호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 제작지원 별도공모 추진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홍승욱 극장운영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본 사업은 2024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본 공연에 대한 최종 결과가 지난 회차에서 의결이 되었는데요. 그때 전체 사업비 가운데 약 5억 원 정도의 잔여예산이 발생했습니다. 잔여예산이 발생한 사유는 작품별 제작 규모가 전년대비 좀 하향 조정이 되었고요. 오페라나 일부 장르가 심의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최종 목표한 건수만큼 결정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에 대한 잔여예산을 갖고 역대 창작산실,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됐던 총 303개 작품들을 대상으로 올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2차 제작을 통해서 지역 또는 수도권에서 공연할 계획이 있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원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수작품들이 지역에서 지역시민들에게도 향유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각 분야별 지원규모는 연극이 최대 1억 원, 뮤지컬이 최대 1억 5,000만 원, 무용, 음악, 전통예술이 최대 8,000만 원, 창작오페라를 최대 1억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5개 정도의 작품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공연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해 주시면 다음 달 6월 3일에 지원신청접수를 시작으로 해서 6월 24일까지 25일 간 접수를 받고 그 다음 결과발표 후에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잔여예산으로 올해만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별도공모가 나가나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일단 올해는 파일럿 프로그램 형식으로 잔여예산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2025년도 예산에는 현재 지역우수단체들을 다시 발굴해서 2차 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파일럿으로 운영이 되고요. 위원장님이 일전에 장관님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하고 협의하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지금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을 통해서 진행되거나 아니면 저희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김진각 위원 : 올해의신작에 지원을 하려고 했다가 남은 돈이잖아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맞습니다.

김진각 위원 : 5억 3,600만 원의 돈인데요. 이 돈을 다시 올해의신작이지만 선정되었던 작품 중에서 다시 선정해서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선정을 받은 작품들, 단체들이 또 받게 되는 결과인데요. 이게 이중지원이나 중복지원의 논란에서 자유롭나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사실 과거에 창작산실이 올해의신작이라는 사업과 올해의레퍼토리라는 2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신작을 통해서 발굴되었던 작품들 중 올해의레퍼토리 사업으로 우수한 작품들은 다시 재공연을 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들이 현장의 여러 의견을 통해서 몇 개 장르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효과성이 부족하다고 했고 창작주체형 사업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과거 예술위가 한문연과 진행했던 사업으로 우수한 작품들을 지역까지 갖고 가는 유형의 사업이었거든요. 지역 시민들도 가까운 근래 나왔던 좋은 작품들을

지역에서 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실 올해의신작은 트라이아웃 개념입니다. 초연이 발표되는 것이고요. 공연이라는 것은 재연, 삼연을 통해서 가치가 높아지고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지고요. 그런 작품들이 결국은 해외로 판권이 판매되고 해외에서 공연하는 사례들이 과거 창작산실 사업을 통해서 발견되었거든요. 지금 드린 자료에서도 보시면 40쪽에 있는 자료가 공연 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을 통해서 발굴되고 재공연되고 예경의 국제사업들을 통해서 해외까지 판권이 팔리거나 국제적으로 우수한 성과들을 내놓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파일럿 개념으로 올해 운영하고 이 사업을 정교화해서 예경과 같이 연계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이루어 나가고 싶습니다.

김진각 위원 :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선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20% 안팎인 상황인데요. 선정된 작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로 나가는 아니면 다른 기회가 돼서 또 다른 지원을 받든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는 모습은 좋은데요. 여기에서 떨어진 작품들도 많잖아요. 많은데 이 잔여 예산을 굳이 이렇게 선정된 작품에 또 지원을 해서 더 좋은 작품을 또 만들 수 있는 동력으로 활용되느냐 측면은 이해가 되지만 탈락된 단체들, 지원자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는 남은 예산을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굳이 선정된 작품에 또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올해의신작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예산, 가령 우리가 국가예술지원기관으로서 청년예술가를 지원한다거나 창작산실의 예산으로만 국한하여 여기에만 써야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예산을 전용한다는 차원에서 예술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돈을 배분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가 없나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이게 국회를 통해서 예산 규모가 정해질 때 창작산실 등 사업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규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창작산실 사업 형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의신작이라든가 이런 사업에서 많이 탈락을 하는데 그런 단체를 다시 재선정 하려면 올해의신작은 서류심사, 인터뷰심사 그다음에 실연심사까지 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본 공연까지 선정을 하기 위한 절차가요. 그래서 다시 올해의신작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적 시간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그렇게 발표가 되면 내년 1월, 2월, 3월 초중순까지 모든 공연들이 완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아르코예술극장 같은 경우도 1월, 2월이 대관일수가 적은 달입니다. 모든 공연단체들이 1월과 2월에 공연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아르코예술극장이 1월, 2월, 3월 초까지는 창작산실 시즌처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즌 안에 들어가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김진각 위원 : 현실적인 이유를 저는 충분히 감안하고 타당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경우 탈락했던 단체들의 반발이나 “받았던 단체가 또 지원받네?” 라는 예술현장의 반발도 우려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사실 창작산실사업은 그간에 심의를 진행하고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현장의 반발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심의의 절차적 과정들이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고요. 서류, 인터뷰 그다음에 실연심사까지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현장과의 소통도 이루어집니다. 실연심사 때도 실연심사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로덕션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인터뷰까지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탈락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조금 더 추가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러기에는 조금 물리적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일단은 지원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고 창작주체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전에 레퍼토리

화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설계가 잘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지역문화재단과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지원사업은 보다 더 단계적으로 해 놓자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어져 있는 예산을 수준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 고르게 나눠준다고 하게 되면 정말 더더욱 지역문화재단과 차별성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나눠준다는 차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단계적 지원을 하겠다고 공표를 해 놓고 그럴 수 있는 설계가 안 되어 있다보니 내년부터 그것도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써보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정종열 위원 :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각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면서도 사실상 음악이나 오페라 쪽을 봐도 최우수상을 받고, 대상을 받고 지원을 많이 받았어도 재공연은 사실 힘듭니다. 프로덕션이 붙어서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제 생각은 조금 될 만한 팀을 조금 더 레퍼토리화 시켜주는 게..... 음악분야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톨모델이 확실하게 자리 잡았으면 하는 의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은주 위원 : 제가 좀 추가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고 같은 방향인데요. 공고안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창작하는 것을 지원하고 다시 그 창작 작품을 재공연하는 프로세스로 가는 것은 맞는데요. 예술창작산실 2차 제작지원 사업이라는 공모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공연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대상 작품 중에서 2차 재공연을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공모에 1차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사업으로 받은 단체 중에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작품만요.

배은주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러프하게 민간차원에서 자체 제작한 신작을 포함해서 1차 신작과 민간에서 제작한 작품까지 포함해서 2차 재공연 사업을 지원한다는 공고안으로 약간 바꾸면 지금 우려했던 부분들이 공정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을 드리는 겁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작산실 사업은 동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작으로 발굴한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예산의 규모가 조금 더 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5억 원이라는 예산은 저희가 볼 때 많아야 5개 작품에서 4개 작품이 선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간에 창작산실에 올해의신작으로 유수의 성과를 이뤄낸 작품들 안에서도 작품들을 선정하기는 어려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라 위원 : 저는 오히려 이번에는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한번 고도화를 해보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흔들기보다는 1차로 했던 사업 중에서 고도화를 한다는 관점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런 맥락에서는 이 사업의 이름이 ‘2차 제작지원 사업’ 이거든요. 2차 제작지원 사업이면 한번 더 공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2차 제작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기존 1차 사업을 조금 더 고도화 하는데 지원을 하겠다는 게 핵심이라서요. 요즘 예경은 유통 부분을, 저희는 창작에 대한 지원 성격으로 열심히 얘기해 주셔서 그러한 관점에서 예산의 심사조건을 봤더니 지원내용 및 조건에 “선정 작품의 공연제작비 등 직접 경비의 일부지원”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의할 때 사업 명처럼 2차 제작에 대한 제작 지원사업인 만큼 실제로 공연하는데 원래 있는 작품을 그대로 공연하기 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 더 발전시키고 어떤 방식으로든 고도화시키는 지점이 심의의 포인트가 돼서 이 부분들을 2차, 3차로 고도화해 나가는 창작제작 사업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하는 심의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연 때 작품이 어떠한 성과를 낳았고

재창작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떠한 부족한 부분들을 수정해서 재창작하겠다는 내용을 심의기준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자부담률에 대한 부분도 심의기준 요소로 볼 것입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10%만 자부담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 프로덕션이 조금 더 많이 자부담을 투입해서 제작하는 것에 대한 계량지표도 저희가 심의기준에 마련했습니다.

이훈경 위원 : 공모기간 등을 보니까 앞에 말씀해 주신 것에 비춰서 신작이 들어올 경우 창작산실이라는 특성상 대본을 봐야 되고 낭독해야 되고 실연까지 하는 게 물리적으로 남아 있는 시간동안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은 되거든요. 2차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데요. 기간적으로 봤을 때 공모발표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까지 5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공연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정산은 내년으로 넘어가도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이훈경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역대 선정돼서 발표되었던 공연을 쪽 보니까 제 예상에 연극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에서 2년 내에 발표가 되었던 작품들. 예를 들면 2022년도에 발표되었던 창작산실은 그나마 올해 지원을 해서 다시 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나 6~7년 전 이상의 작품들은 거의 대다수 다시 공연을 올리기가 불가능한 실정일 것입니다. 남아 있는 기간 동안 극장을 잡는 것도 힘들고요. 결론적으로 최근 2~3년 안에 올려져서 현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공연들에 대다수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모순도 조금 짚어 나가고 해결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섯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1062호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이어서 홍승욱 극장운영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이어서 2024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예산 3억 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목적은 대본공모전 개최를 통해서 연극,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분야의 우수한 대본을 발굴하고 작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완성된 대본과 음악을 통해서 지원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연극은 작가별로 1,000만 원씩 10개 작품을 지원하고요. 창작뮤지컬과 창작오페라는 작가와 작곡가가 매칭을 해서 작품을 신청하면 5개 작품을 선정해서 각 작품별로 2,000만 원씩 그리고 작가와 작곡가에게 동일하게 1,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포상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공연화가 가능한 60분 이상의 분량이어야 하고 미발표된 연극과 뮤지컬, 창작오페라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순수 창작물로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심의는 일체 지원자 비공개 심사.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이 됩니다. 2024년 1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지원신청 접수를 받았고 총 270여 건의 작품이 신청을 했습니다. 상당히 텍스트도 많고 음악까지 분석해야 해서 오랜 시간 심의가 진행됩니다.

지원신청 접수 결과 최종 행정 결격된 건수가 29건이 있습니다. 타 사업에 신청한 잘못된 지원신청서나 지원신청서 미제출 또는 반드시 제출해야 될 대본이나 음악, 음원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또는 기공개된, 기발표된 작품까지 포함하여 29건이 결격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심과 본심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보시면 연극과 뮤지컬은 작품 건수도 많고 분석해야 될 건수가 많아서 예심과 본심의 절차를 진행하고요.

오페라 같은 경우는 8건 정도가 신청했고 행정결격이 3건 있어서 심사대상이 5건입니다. 그래서 오페라만 통합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심 채점은 80점 이상을 득한 경우 2차 대면심의 때 후보로 올라와서 토론과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되는 방식으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심의위원 구성 방식은 장르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격자 지정방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46쪽 하단부터 분야별 심의위원 명단이 나와 있고요. 심사일정과 장소는 오페라 예심은 5월 14일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뮤지컬과 연극은 4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예심이 진행되고 5월 16일과 17일 본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봐주실 부분이 창작오페라가 단 1건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같은 경우, 대본공모도 역시 포함이 되는데요. 작품의 예술성을 그만큼 강조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심의위원 5인 모두의 동의와 결정하에 1개 작품도 선정하지 않고 남은 1억 원의 예산을 각각 연극과 뮤지컬에 배분해서 추가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극이 14개 작품이 선정되었고 창작뮤지컬은 8개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창작오페라에 대한 심사평이 궁금하시면 64쪽과 65쪽에 심사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고 고려해서 작성하신 심사총평이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만, 국회지정사업 상정 건으로 잠시 휴정하고 자리를 정돈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46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정병국 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고 사항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입니다.

보고안건은 2024년 국회지정사업 서울발레페스티벌 추진계획 등 총 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2024년 국회지정사업 서울발레페스티벌 추진계획에 대해서 정창호 공연예술팀장이 보고를 드린 후 주관단체인 서울발레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고정균 기획위원장과 고영우 대표, 서울발레 씨어터 신은석 부단장이 참석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

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보고안건 2024년 국회지정사업 서울발레페스티벌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는 2023년 12월 본회의 예산이 확정된 후에 3월 20일에 사업세부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 사업계획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행사명은 2024 서울발레페스티벌입니다.

사업기간은 10월 8일부터 9일 이틀간 진행이 되고, 장소는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와 아뜰리에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서울발레워크’ 라는 게 있고요. ‘석촌호수 발레프린지 페스타’ 그리고 ‘발레콩쿠르 드 서울’ 로 되어 있습니다.

주최/주관은 서울발레페스티벌 조직위원회고 국회지정사업으로 들어온 지원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사무처 검토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구성은 주된 공연 외에 해외 발레의 초청공연이나 교향악단 라이브 음악회 등 부대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됩니다.

사업비 및 예산 내역 쪽에서 봐주셔야 할 내용은, 이 행사가 서울발레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행사와 함께 2개의 행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지원금 1억 원에 대해서 사업비 계정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그 외에 안전보험이나 회계검증 수수료 등 문예진흥기금 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준용해서 회계투명성을 반영한 것을 체크했습니다.

오늘 사업설명을 들으시고 접수해 주시면 2024년 6월에 사업승인 및 교부를 하고 10월에 행사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그러면 발표자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서울발레페스티벌 관계자분들은 본인소개를 차례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정균이라고 합니다.

고영우 서울발레페스티벌 조직위원회 대표 : 안녕하세요, 서울발레페스티벌 조직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고영우입니다.

신은석 서울발레씨어터 부단장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발레씨어터 부단장 신은석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국회지정사업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예. 작년에 1회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8월에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공연장의 안전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두 달 넘게 공사를 하고 11월 8일에 개막을 하게 되었고요. 그전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위상이 최고라고 하는 한국발레가 대한민국 국민, 특히 문화예술계에서는 너무 모르고 있어서 발레를 대중화 시키는 작업을 해야된다는 의견을 드려서 서울시립발레단 창단을 말씀드렸고요. 더불어서 발레축제가 기존에는 실내 축제로만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송파문화재단에서 그 지역에 있는 석촌호수가 백조의 호수와 연관지어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송파문화재단이 마침 국제행사에 약 6,0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함께 공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구청장님과의 갈등 때문에 6,000만 원의 지원이 안 되고 고스란히 단체가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6,000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데요. 11월 8일에 참석하셨던 오세훈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축사를 통해서 세계적인 발레축제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함께 공유하면서 막상 중요한 예산 문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막식이 끝난 다음날 제가 직접 국회를 찾아가서 함께 하셨던 김승수 의원을 비롯해서 문광위 의원들에게 “내년에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최소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행사축제가 공모로 진행되지만 내년 1년 만이라도 국회에서 정부지원 사업으로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문체부와 기재부가 반대를 했었지만 발레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위상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설득해서 국회지정사업으로 1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인주 위원 :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023년 작년에 1회를 개최하신 거죠?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예, 그렇습니다.

장인주 위원 : 11월에 하셨어요.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예. 11월 8일 개막해서 5일 동안 했습니다.

장인주 위원 : 석촌호수에서요?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예.

장인주 위원 : 계절 상 좀 어려웠을 것 같아서 올해는 10월에 계획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총 얼마가 들었고 어떻게 충당을 하셨나요?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2개 단체로 해서 9,000만 원씩 1억 8,000만 원을 지원 받았고요. 메세나 사업을 신청해서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저희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송파문화재단에서 6,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내부갈등 때문에 지원이 안 돼서 고스란히 6,000만 원을 빚으로 안고 있습니다.

장인주 위원 : 그러면 올해는 서울시에 지원신청을 안 하셨나요?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예. 모두 6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서울발레페스티벌이 전체행사지만 전체적인 축제의 선두로 2일 동안 하고요. 국제발레워크가 2일 그리고 석촌호수 발레프린지 페스타가 2일로 총 6일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지정 예산은 1억 원이 2일 간 그리고 국제발레워크가 1억 원이 서울시에서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중화 발레 쪽으로 석촌호수 발레페스타가 1억 4,000만 원으로 총 3억 4,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인주 위원 : 잘 알겠습니다. 2회를 진행하시면서 그동안 역사적인 연륜은 부족할지 몰라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획하셨기 때문에 잘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

히 여러 사업들이 많았는데 그 사업들이 많았던 것에 비하면 딱히 무용계에서 그렇게 이슈가 되지 못했던 이유가 분명 있을 겁니다. 물론 1회기 때문에 홍보 등이 부족하셨겠지만요. 그래서 올해는 미리 잘 준비를 하시고요. 10월에는 아시다시피 정말 공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야외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집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예.

배은주 위원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의도를 보면 “서울의 랜드마크인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의 장인 국제발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명도 ‘서울발레페스티벌’ 이라서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금을 모아서 하는 사업이면 그것을 총칭할 수 있는 사업명으로 변경하시거나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시의 사업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예. 서울발레페스티벌이 전체적인 행사의 명칭이고요. 유사한 명칭의 축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서울을 지명으로 넣는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서울에 집중되고 송파에 석촌호수가 있다 보니까 굳이 명칭을 넣었던 것이고요. 안 그러면 월드나 국제라고 넣어야 하는데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나 5회까지만 이렇게 예산이 분산되고 하나의 예산이 될 것으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정갑영 위원 : 송파구는 뭘 합니까?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문제지만 송파구와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6,000만 원도 문화재단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선출직 구청장님이다 보니까 조금 오해도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도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장소협조. 제일 중요한 게 장소협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6일간 파견. 그리고 안전문제를 대응하고요. 마침 조례를 통해서 구의회에서 국제행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최소 1억 원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 같고요. 지금 한성백제축제에 15억 원 정도를 송파구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1억 원 이상만 지원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갑영 위원 : 넓게 보면 서울이고 좁게 보면 송파구의 석촌호수 주변에서 일어나는 행사인데요. 지역 사업에 대해서 지역에서 해보다가 안 되면서 국회에 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예술위원회의 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갑영 위원 : 아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더 문제인데요.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행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다음에 예산을 잠깐 보니까 송파구는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도 이해가 안 가요. 송파구립교향악단이잖아요.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예.

정갑영 위원 :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식전행사로 30분을 하시는데 60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절반만 했습니다. 50%요.

정갑영 위원 : 50%가 아니라 그 정도는 송파구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주지는 못 해도요.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그 이상으로 저희가 부탁을 드려봤지만.

정갑영 위원 : 그러면 굳이 송파교향악단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보이지 않는 갈등과 오해가 있어서요. 해소가 되었지만 작년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갑영 위원 : 후원에 송파구청, 서울시를 명시하고 식전행사에 송파교향악단이 출연하는데 정작 해당 예산은 국회를 통해 문예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지만 후원을 받는 과정에서 소통 상 어려움도 있었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정갑영 위원 : 주최측의 어려운 입장은 차치하고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참고로 이 행사는 무료 행사입니다.

정갑영 위원 : 유료로 한다면 모객이 쉽지 않을 겁니다.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작년에 제일 크게 감동을 받았던 시민들의 멘트가 “제가 냈던 세금을 너무 잘 써서 고맙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방송과 신문에도 엄청 많이 홍보가 되었고요.

정갑영 위원 : 다 좋은데 이것은 전형적인 서울시 행사라는 말입니다. 세금 얘기를 하지만 교외나 타 지역의 사람들이 오는게 아니잖아요. 순회라면 또 모르겠어요.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올해만 도와주시면 내년부터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홍성태 위원 : 올해 4월 서울시 발레단이 발족되었잖아요?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예, 그렇습니다.

홍성태 위원 : 거기하고 여기의 역할이 어떻게 되고, 또 거기에는 지원이 없는지? 또 이게 페스티벌인데 이 페스티벌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건가요? 그냥 시민들

이 즐겁게 한 번 페스티벌을 즐기게 하는 건가요?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의 마린스키 ○○○이라든지 파리의 ○○○이라든지 세계적으로 최고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해에 100명 정도가 졸업하는데 국립발레단이나 시립발레단에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우리나라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함께 발레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 발레단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나 학생발레단이 한꺼번에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장이 없습니다. 야외에서 무용으로는 보여주기 어렵지만 그래도 무용수들이 발레를 홍보하고 발레의 대중화를 위해서 하는 행사고요. 시립발레단이 컨템포러리로 진행되지만 5명밖에 단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1팀 정도 출연할 예정이고요. 국립발레단부터 프로발레단이 대부분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협업하는 대중화 축제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기대되는 사업성과에 보면 석촌호수 활성화에 기대되는 사업성으로 많이 넣으셨어요. 석촌호수에서 세계 9개국 10단체들이 발레를 중심으로 위상을 높인다고 되어 있고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인 석촌호수에서 문화콘텐츠 ‘발레’를 통해 세계적인 문화예술축제로 매김할 것이라고 기대성과에도 넣으셨는데요.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정말 실무부서에 찾아가서 애원을 하고 단 2,000만 원, 3,000만 원의 예산이라도 도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도 그렇고 구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은 아예 없었고요. 구 의원분들이 도와주시기는 하셨습니다. 3,000만 원이라도요. 그래서 하반기 추경 때 예산이 못 올라가지만 법적 조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김진각 위원 : 국회지정사업을 통해서 들어오신 건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금 출연 단체들을 보면 확정된 것은 국내밖에 없어요. 이게 10월인데 아직까지 협의 중이라고 하면 이게 가능해요?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무용계에 계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외국 발레단이 시즌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7월까지의 기다려줘야 합니다. 본인들의 일정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는 시기가 7월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들어오는 걸로 내부적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훈경 위원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람객수가 작년 인원 같은데 6,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람객수를 추정할 근거는 어떻게 해서 산출을 하셨을까요?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수변무대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600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웠지만 좌우에 서계셨던 분들까지 하면 1,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훈경 위원 : 면적대비로 계산을 하셨나요?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예. 그것도 왔다갔다 하신 분들을 빼고 순수하게 5일 동안을 있

던 분들이 6,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훈경 위원 : 그러면 혹시 대답이 불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페스티벌이잖아요. 그렇다면 관객들 중에 송파구나 석촌호수 주변의 인구가 아닌 타지역. 그러니까 서울에서 석촌이 아닌 타지역에서 오신 관객수의 추정은 불가능하시겠죠?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그 데이터는 저희가 못 만들었고요. 추산으로만 20% 이상은 외지에서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산책로이기 때문에 워낙 많은 분들이 다니시는 곳인데 복장을 본 것도 있고요. 외지에서 200개 출연단체가 참여를 했기 때문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나 학부모도 계셨기 때문에 20% 정도는 외지인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훈경 위원 : 가능하시다면 올해 하실 때는,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시는 것처럼 석촌이라는 또는 송파구라는 지역이 서류상 계속 강조가 되다보니 그런 쪽으로 색깔이 많이 비취지니까 가능하다면..... 적어도 서울이라는 명칭이 붙으려면 관객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분포도 수치가 파악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그것을 해보실 수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장인주 위원 :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덧붙여서 여쭙겠습니다. 사실 제 눈에도 들어왔는데 여쭙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해외 발레단 스케줄을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스페인 국립발레단은 누구와 섭외 중이신가요?

장인주 위원 : 찾으시는 동안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국회지정사업으로 들어와도 사업평가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도 여러 전문가분들이 나가서 평가도 하고요. 그래서 2023년에 평가를 받은 것보다는 훨씬 더 꼼꼼하게 받으셔야 될 텐데요.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보스턴발레단은 ○○○○○, ○○○○○○ 등 수석무용수 2명이 고요. 중국은 중국국립발레단인데요. 스페인국립무용단은 라라댄스 프로젝트 발레단이 옵니다.

장인주 위원 : 라라댄스 프로젝트요?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예. ○○○○○가 안무한 단체입니다.

장인주 위원 : 스페인은 국립발레단에서 무용을 하고 무용단에서 발레를 하거든요.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국립발레단에도 소속되어 있으면서 라라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 댄스팀입니다.

장인주 위원 : 또 다른 곳도 말씀해 주세요.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해외 전담팀이 있어서요.

신은석 서울발레씨어터 부단장 : 섭외를 전담으로 하는 팀이 있는데 오늘 개인 사정상 못 오기는 했는데요. 해외에서 활동하는 시즌무용수 중 스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매년 섭외할 때 어려움이 뭐냐 하면

그 친구들의 답변이 좀 늦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스페인발레단의 ○○○○○를 섭외했는데 그분들이 한 달이 안 돼서 무용수를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무용수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많은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발레단, 무용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는 발레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쪽에서는 무용단을 발레단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인주 위원 : 잘 알겠고요. 최근에도 프로그램에서 나갔던 무용수가 교체되면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건 아니죠?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예, 알고 있습니다.

장인주 위원 : 그래서 최소한 그런 공연으로 물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애정을 갖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섭외 중인 무용수들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0월 공연이면요. 아직도 그게 분명하지 않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7월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장인주 위원 : 꼭 확정해서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김진각 위원 : 예산 관련된 것을 여쭙보려고 하는데요. 예산책정 내용을 보면 해외 출연팀에 1팀 당 200만 원의 사례비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200만 원을 가지고 되나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예산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서울발레페스티벌이 1억 원이고요. 국제발레워크가 1억 원, 그 다음이 1억 4,000만 원인데요. 외국에서 오는 팀들이 보통 2번을 공연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쪽에서 페이를 받고요. 한번은 국제발레워크에 출연해서 받습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러면 200만 원이라는 것은?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1회 출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진각 위원 : 몇 명이나 출연합니까?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보통은 2명이고요. 조지아발레단이나 스페인이 6명 정도가 되는 데요. 그런 데는 좀 비용이 많고요. 보스턴발레단도 수석무용수가 오지만 2번 공연에 2,500불 정도로 잡아놓았습니다.

김진각 위원 :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저희가 싸게 모시고 오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진각 위원 : 200만 원을 받고요?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그렇게 옵니다. ○○○ 교수님이라고 한예종에 계신 분께 특별히 예산이 모자라서 도와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진각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발레씨어터라는 사단법인과 더원댄스컴퍼니는 어떤 관계인가요?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별도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단체고요. 공연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각 위원 : 협력인가요? 아예 용역을 주는 건가요?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별로 별도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해외에서 오는 무용수들의 명단은 돌아가면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할 것은 더 이상 국회지정사업으로 이 사업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확인입니다. 지난해 행사를 하고 나서 예산편성 이후에 전개되었던 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이 국회지정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해를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더 이상 이 사업이 국회지정사업으로 들어오게 되면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이니까 내년부터는 국회지정사업으로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이 안전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돌아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균 서울발레페스티벌 기획위원장 : 고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보고안건은 2024년 경영전략소위원회 임시 및 2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정갑영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 : 경영전략소위원회는 5월 16일과 5월 24일에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열었고 참석자는 122페이지에 있는 대로 1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회의안건은 기관 조직운영 방향 도출 연구라는 연구과제 하나와 문화예술위원회 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전략 수립 운영방안에 관한 것. 그리고 위원회에 올라오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을 어떻게 간소화하고 개선해서 집중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안 수립 경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기관 조직운영 방향 도출 연구에 관한 것은 아마 공모가 나갔을 겁니다. 공모가 나갔는데 주요 과업이 조직개편, 인력 재배치 등에 관한 것. 사무처 조직 운영에 관한 인력운용 수립 방안. 그리고

이것에 관한 개선 방안 도출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한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고 개편된 조직으로 시작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다 끝난 다음에 이것을 해서 될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인 연구의 덩어리를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그 연구의 큰 덩어리들이 3개, 4개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납득할 계산식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논의를 해 봤고요. 논의를 해서 대체로 일치를 본 것은 “시기적으로 맞는 것 같지 않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기금을 쓰는 것 같은데 정책에 관한 것이면 모르는데 위원회 운영방안에 관한 것을 연구용역으로 나가게 되면 기금사용의 문제나 시기상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논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추진하는 부서에서 과업을 일단 중단하고 차후에 연구방향과 주제를 재검토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정도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중장기전략 수립 방안 같은 경우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장관님과 미팅을 했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책을 제시해 보라.” 그래서 위원회의 궁극적인 자립이라는 것은 예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문체부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런 취지에서 기관 중장기전략 수립 방안을 5년 정도의 텀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여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회에서는 경영전략소위원회가 참여하겠지만 전체적인 조율이나 퀄리티 매니저(QM)는 김진각 위원께서 담당을 하시고 사무처에 연구 인력도 있고 실무 인력도 있으니 이런 분들과 진행하고,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것들이 첨부되고 회계도 따져봐야 되니까 그것에 관해서는 한미회계법인의 김재중 박사와 그 외에 또 다른 연구원이 필요하면 주제별로 1~2인 정도 더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123쪽에 과업단계와 주요사항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 사무처에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운영방안을 만들어서 초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 QM께서 수고를 해 주시고요. 소위원회와 얘기를 하면서 진행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안건처리 개선 방안에 관해서는 방금 전 국회지정사업 보고도 있었지만 어떤 안건은 의결하고 어떤 안건은 보고를 하는데요. 차별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고요. 의결도 심도 있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듣고 대충 동의하는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를 개선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의결안건을 줄여서 논의를 깊게 해보고, 보고안건은 크게 시간을 잡아먹으니 그런 것들은 서면으로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토의시간을 늘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필요성에서 의결과 보고에 관한 안건 처리 개선방안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 소위원회에서만 얘기해서는 될 것은 아니고 위원회와 같이 보고도 하고 토론도 하고 얘기를 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안 수립 경과를 아까 보신 대로 사무처에서 문체부와 협의해서 나온 예산에 대한 큰 테두리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공금했던 사안을 질문드린 것은 “시각예술이 2.5배 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소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었고요. 청년문화예술패스 같은 경우는 예산이 크게 줄었는데 정책의 연속성에서 이것에 대한 지속성은 담보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보고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의견보다는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아까 논의안건을 말씀드렸던지라 첨언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문화예술생태계에 대한 연구용역 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논의사항으로 올렸던 것인데요. 그때 회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이 이미 업체 선정이 끝난 이후에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내용을 보고해 주셨고요. 명칭 자체가 ‘문화예술생태계’ 인데 왜 장르 위원님들과 과정이 소통되지 않았는지? 시작부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가 조금 더 면밀하게 소통되었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업체 선정이 끝난 이후에 보고가 된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고요. 그리고 들여다보니 타당성이나 시기가 적절한가? 이미 현장보고도 매년하고 있고 장르별 소통도 진행하고 있는데 문화예술

생태계에 대한 연구용역이 별도로 진행되는가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의결사항인가 아닌가?”, “보고사항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정갑영 위원님 말씀처럼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에 대한 명확한 구조적 정리가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조차도 이게 의결안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지니 그 정리가 명확해져야 이런 회의를 할 때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묶어서 오늘 논의안건으로 올린 것이라서 함께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해서는 결국 제 불찰이라고 생각해요. 저조차도 우리 위원회의 규정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집행했던 케이스인데요. 이 안건을 실무진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모든 우리 위원회 운영규정들을 가져와 보라고 했어요. 가져와서 파악을 해보니, 명확하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의결안건인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했던 정책조사연구가 의결안건입니다. 그런데 의결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고만 하고 실무진들도 그것에 대해 놓쳤던 것이고요. 결국 제가 마지막에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갑영 위원님께서 소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조직개편 이후 사안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시점이 맞는가?” 라는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정책전문연구원들이 올해 과업으로 어떤 부분들을 연구하겠다고 해서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을 때 제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측면에서는 급하게 사업을 재편하고 심사제도를 개편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는데요. 이것을 올해 해보고 내년에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평가해 보면 제 임기가 끝나고 그것을 고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서 병행해서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올 연말에 연구 결과가 나와서 보완을 해야 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내년에 고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는데요.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받고 판단한 결과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구요. 앞으로는 조사, 연구와 관련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무진들로 하여금 평상시에 진행되는 사항들을 가능하면 대부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실무진들이 워낙 일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간간히 놓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유의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다 인지하시고 파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훈경 위원 : 그러면 하나만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정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은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 쪽으로 올라온 문화예술생태계 건은 이미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하고 그날 회의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금 갈리기는 하셨어요. 이것을 진행해야 한다 아니다는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났거든요.

정병국 위원장 : 그 사안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어요.

이훈경 위원 : 이미 선정이 끝났으니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논의안건 다룰때 담당하고 있는 예술정책·후원센터에서 내용을 보고드리고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다음 안건인가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논의안건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다음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대 위원 : 우리 위원회가 의안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역할 외에 외부에 있는 사람이니까 5년, 10년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역할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연구용역을 외부에 하는데 우리 조직 내부의 것을 외부에 용역할 일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외부에 만약 용역을 준다면 우리 비전에 대한 용역. 그렇게 되면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술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경영전략소위원회를 두게 된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논의를 심도 있게 하셔서 용역을 줄 부분이 있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안건처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소위원회의 의견을 본회의에 올려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방향만 제시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안을 만드셔서 본회의의 안건으로 올려주셔서 의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바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논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하자는 취지로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니까 소위원회를 활용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진각 위원 :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는 용역 관련된 것은 위원회를 패싱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정상화 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소위원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용역이 되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많이 발주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위원회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용역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용역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병국 위원장 : 여태까지 미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외부로 나가는 조사, 연구용역은 안건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김진각 위원 : 소위원회에 해당되지 않는 용역도 있지 않습니까?

정병국 위원장 : 그런 용역도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의결을 해줘야 용역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처리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김진각 위원 : 사실 용역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불요불급한 용역이 없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술위의 정책운영이나 사업운영에 잘 녹아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과 함께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도 사무처와 위원회에서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제 기억으로는 외부 용역이 별도로 나간 것은 골프장 운영 건과 관련해서 나간 게 하나 있고요. 현재 다른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사무처에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외부로 나갔던 연구, 조사용역을 전부 다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했는지도 정리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보고안건은 2024년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1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김진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5월 29일에 1차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1차 회의이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원래 작년에 예술후원활성화소위원회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2가지로 소위원회의 운영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후원 발굴을 확대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술위원회 자체의 홍보 부족. 그리고 브랜딩이 잘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어떻게 하면 예술위를 조금 더 알릴 수 있을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2가지 차원에서 앞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후원 발굴의 문제인데요. 후원 발굴이라는 게 예술가치에 대한 확산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첫 번째가 지난번 베니스비엔날레 때 후원했던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기업들이 호스트가 돼서 기업의 예술가치 확산을 위한 테이블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덧붙여서 베니스비엔날레 후원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예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공연이나 전시의 할인티켓을 제공한다거나 하는 내용으로 성의를 좀 보일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후원활성화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많은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지금은 매개나 인증 등의 내용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후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항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같이 예술위와 토론회를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는 쪽으로 해보는 게 맞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덧붙여서 협의체 구성. 후원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예술위원회만 갖고는 예술의 가치 확산이나 후원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메세나협회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들과 같이 예술기업후원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해 나가면서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위 브랜딩 제고와 관련해서는 홍보 강화라는 부분인데요. 아르코에 붙어 있는 예술현장의 파트너라는 슬로건. “이 수식어가 지금 과연 맞느냐?” 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안들.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적으로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슬로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요. 필요하다면 이벤트 같은 것을 해서 공모 형식으로 접근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들. 앞으로 점차적으로 세제혜택을 도입한다든지 기업의 문화예술지수를 도입하는 방안들도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눴고요. 그래서 다음 회의 때부터는 이것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이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대 위원 : 제가 지난 1년간 위원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얘기를 하면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고 말도 길지만 아르코라고 하잖아요. 혹시 위원님들은 아르코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아르코가 사실 뭐의 약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 알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뭘 했어?” 라고 하면 한 것은 되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 어떤 감동을 줄만한 스토리를 찾았으면 좋겠고요. 심지어 ‘아르코’ 라고 쓴 글자의 폰트 디자인도 지금은 없습니다. 코카콜라라고 하면 알듯이 아르코라고 하면 폰트 디자인도 있어야 되고요. 제가 1년을 옆에서 보면 우리를 알리는 역할도 되게 중요하고 신경을 쓸 게 되게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정숙 위원 : 저는 기타 안전처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브랜드를 말씀하시니까요. 저도 사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지역의 문화예술계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거의 신성시 할 정도로 여기 공모사업에 되면 인생의 자랑이 되는 기관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정말 모르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개별적으로 작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면접관이나 심사위원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나주에 한국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력 관련 업체가 4개가 내려가 있더라고요. 우리 예술위원회도 내려가 있지만 거의 15개에서 20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내려가 있는데 그쪽에 가서 잠깐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야기를 했더니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1명이 아니라 몇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 예술위원회가 나주의 주민들과 가깝게 네트워크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역에 있는 분들이 너무 모른다는 사실을 이번에 체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타 분야의 기관들과 지금 이미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콘텐츠진흥원과 우리가 있는데 콘텐츠진흥원은 잘 아는데 우리는 모른다? 이것은 뭔가 우리의 홍보 전략이나 네트워크 노력에 뭔가 허점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콘텐츠진흥원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면 OK. 그런데 콘텐츠진흥원은 잘 아는 겁니다. 그 옆에 우리 건물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게 우리 예술위원회다.” 라고 했더니 “아, 그래요?” 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가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가 지향해야 될 중요한 사안들의 결말을 내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는 결말을 낼 수 있는 안건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후원 발굴과 관련해서 결국 우리의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국회의 법이 확정되지 않으면 세제혜택 등은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바로 국회에 나가서 세미나를 하게 되면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보여주기식으로 끝나고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전혀 실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 등 소위원회를 통해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구체적으로 안을 만드셔서 정부 입법으로 할 것인지? 의원 입법으로 할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한 다음에 의원들을 접촉해서 의원 입법으로 할 것 같으면 의원을 통해서, 정부 입법으로 할 것 같으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후원지수도 제가 계속 우리 실무진들한테 지난해부터 빨리 만들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의 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우리가 논의하고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술로건도 마찬가지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자고 요구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 의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와서 제일 답답한 게, 제가 요즘 강연을 많이 나가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 제일 먼저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뭘 하는 곳인지 몰라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이라고 하면 아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위원회로 바뀐 것에 대해서 말해주되 그냥 One of them으로 생각해요. 정부의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자문기구 위원회로 생각하지 집행기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포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어떤 형상이냐 하면, 제가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인데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홍보 파트까지 보강을 했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서 홍보하는 방향이라든가 스킬까지 포함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던 것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우리 보도자료는 거의 안 나가고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베니스비엔날레도 그렇게 고생을 해 놓고 문화체육관광부도 후원기관도 제대로 홍보를 안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후속 기사가 나와 봐야 안 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홍보도 파트별로, 팀별로 전부 다 외주를 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주를 받은 업체들이 의례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영혼이 없는 보도자료가 나가니까, 그렇게 많은 보도자료가 나가는데 누가 그것을 쓰겠어요? 지금 기자들은 자기들이 찾아서 쓰는 경우가 없어요. 보도자료를 만들 때 거기에 카피. 그러니까 헤드라이트를 어떻게 뽑아주느냐를 보고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문화누리카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해 놓고 나갈 때 보면 문체부에서 먼저 보도자료를 내면 그 기사가 다 나가고요. 후속적으로 아무리 홍보해도 아무도 보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요즘 그것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전문가이신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영전략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로 용역을 줘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논의해서 안건으로 올려주시고요. 예술가치소위원회에서는 후원활성화와 관련하여 우리가 입법할 것은 입법하고 실행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결정해 주셔서 안건으로 올려주시면 바로 여기에서 의결해서 탄력 있게 집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아까 추가적으로 진행하자고 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위원회 전체회의 일정부터 정해 주시면 그 다음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면 6월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사무처장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일정 조정)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6월 위원회 전체회의는 6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논의 사항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정책연구용역 진행절차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이제승 예술정책·후원센터장이 보고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승 예술정책·후원센터장 : 소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번에 논의안건으로 정책연구용역 진행절차 개선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이 일반연구비라는 예산항목으로 편성된 것은 2010년부터입니다. 그전에도 연구가 있었지만 그전에는 비목이 좀 달랐던 것 같고요. 많게는 4억 5,000만 원에서 많이 줄었을 때인 2016년에는 약 1억 원 정도로 연구를 했고요. 최근에는 약 2억 5,8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은 내부적으로 위원장님 결재를 득한 후에 과제 수요조사 선정, 연구자 선정, 연구관리 평가 및 환류 진행과정에 따라 진행을 하면서 사실 위원회 보고 및 의결 없이 추진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총 100여 건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사실 소위원회에서 요청하거나 협업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보고와 의결이 없었던 사항이었고요. 2024년도에도 역시 결재를 득한 후에 해당부서 협의나 용역 발주 내부 공론화를 진행했습니다만, 지난 5월 16일, 24일에 경영전략소위원회 임시회의와 2차 회의에서 조직 운영방안 연구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 의견을 받아서 입찰공고를 5월 27일에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에서도 역시 생태계조성 진행경과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진행 중인 용역이었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위원회 논의구조를 확보할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생각하는 개선안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 위원회의 직무 제6항에 문화예술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현재 경영기획본부에서 위원회 안건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후속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예술정책·후원센터에서는 관련한 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개정해서 위원회 논의구조에 정책연구가 포함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연구 1억 원에 대한 잔여예산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추진계획을 위원회에서 새롭게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구성원 의견조사는 이 조직진단 연구와 다르게 우선협상 대상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조달청 절차에 의해서 이 부분은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협상 대상자와 최대한 사전 협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라든가 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구조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 생태계 구성원 의견조사는 이 업체가 실질적인 연구기획을 하진 않고 많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사해야 하다 보니까 관련된 것을 진행하고 사례비를 지급해주는 업무같이 말 그대로 손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구조 안에서 충분히 위원회가 바라는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생태계 구성원 의견조사 연구에 배경과 경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용역발주가 갑자기 된 것은 아니고요. 그 전부터, 특히 50주년을 맞이해서 정책파트에서 6개 영역

에 대해서 자체 연구를 추진하고 또 이후 현장업무보고에서 나온 이야기 등을 모두 취합해서 오랜 기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담심의관도 새롭게 임명되고 관련된 본부, 부서와도 협의를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모르셨다는 점에서 이 불찰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계획인데요. 연구계획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연구 단계에서 위원회 그리고 전담심의관을 포함한 사무처가 어떻게 논의구조에 함께 할 수 있을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봤습니다. 추진단계별 계획을 보시면, 사실 지금은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 과제를 도출해서 전담심의관들이 어떻게 참여할지를 준비했구요. 이후에 연구설계안 검토, 의견수렴대상 확정, 의견수렴 추진 그리고 마지막에 연말에 있을 의견조사내용 분석, 시사점 도출은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를 포함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잘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식을 보시면 예술위원회가 기획과 머리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용역사는 손발이 돼서 의견조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추진방식에 대한 새로운 검토나 방식의 새로운 확정까지 다 열어놓고 의견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페이지 이후에는 지난 연구용역으로 수행했던 과제물 리스트가 있습니다. 사실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기관이 경영평가에 주력하다 보니까 경영평가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라든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성과평가 쪽으로 연구가 많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전체회의 보고·의결과 피리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보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 한 가지 여쭙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연구성과들이 있었는데 한번도 저희가 궁금해 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기존에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저희가 온라인상에서나 볼 수 있는 데가 있나요? 그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승 예술정책·후원센터장 : 정책연구 예산으로 수행된 연구는 법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8기 위원회 때는 올라온 것이 없어요?

이제승 예술정책·후원센터장 : 2023년도에는 50주년 기념사업 연구로 추진을 해서 올해가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라 위원 : 작년 TF팀을 할 때 당인리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했던 게 있는 것 같고요.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우리가 오기 전에 한 것 아닌가요?

김미라 위원 :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TF팀에서 했습니다.

장인주 위원 :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문화생태계 구성원 의견조사 연구는 어쨌든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더 명확하게 하고 싶다면 용역을 발주하는 게 전체 연구 자체를 외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상주하고 계신 연구원들이 진행하면서 전담심의관도 참여를 하시고 전체 진행을 하거나 인터뷰 하는 것을 외주로 주는 것이지 연구 자체 전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계속 오해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소위원회를 할 때도 진행에 있어서 뒤늦게 들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다른 소위원회는 어떤

지 모르겠어요. 그 연구는 지금 안 하게 되었으니까 다시 그것을 언급하고 싶은 게 아니라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오해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서승미 위원 :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꼭 필요한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이번의 문제는 용역을 하는 것을 다 떠나서 가장 큰 문제는 소위원회 역할과 위원의 역할이 어디까지 관여가 되고 그것을 어떻게 사무처와 손을 맞춰서 가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소위원회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렇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니까 외주 용역의 힘을 빌리자.” 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갔을 때 낭비도 안 되고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단 사무처에서는 용역은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절차는 알겠어요. 그동안 관례는 알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희 소위원회 위원님들도 정말 바쁜 시간을 내고 모여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의견을 내면 항상 “그 의견은 관례대로 일을 했고 알아서 저희가 진행하겠다.” 그리고 또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 참여를 안 한 느낌처럼 얘기를 하니깐 중간에서 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의 느낌은 “저 사람은 위원인데 모르나?” 이게 너무 엉켜 있다는 거죠. 지금 벌써 1년 반이라는 시점이 지났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저는 충분히 거기에 맞춰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역의 문제가 아니고요.

송시경 사무처장 : 어쨌든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2005년 위원회 발족 이후 관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렇고요. 그런데 이번에 경영전략소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 심의·의결사항이고 무엇이 보고사항인지에 대해서 조차도 명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얘기한 부분은 먼저 안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경영전략소위원회에 운영규정을 포함해서 이러한 부분은 의결사항이고 이 부분은 보고사항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6월 말에 다시 한번 논의안건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30조를 말씀하셨는데요. 심의·의결사항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고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30조뿐만 아니라 저희들 정관 15조에도 심의·의결사항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30조 1항에 보듯이 “기본계획 등의 수립” 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소유한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안전계획 등은 의결사항으로 처리를 했습니다만 넓혀 버리면 극장의 사소한 대관 등도 있는데요. 그동안은 관례에 따라서 법의 규정된 굵직한 부분만 했는데 말하자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조사, 연구, 교육, 연수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이 아니라 체육기금이나 일반회계가 사업까지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렸던 절차로 내부에서 먼저 안을 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문제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위원님들이 보태서 더 잘 되게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 사안이 있으면, 이 안은 법에 규정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꼭 의결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 자체를 위원들이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의결사항이든 보고사항이든 그런 게 아니더라도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들이 다 알고 같이 진행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모든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사안들에 대해서 소위원회까지 만들었는데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그게 아니고 의결사항인데 보고사항으로 했냐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 사안이 아니니까 사무처에서도 그런 것을 만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안의 취지를 잘 살려가지고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사안들, 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고 논의되고 있고 집행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아실 수 있도록 해 드리라는 겁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열심히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모르고 넘어가면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하시냐고요. 그래서 카톡방도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올리세요. 기본적으로 어떤 결정이 되면 일단 올리세요. 필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상에 이 사안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실행할 것인가가 규정으로 만들잖아요. 그 규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7.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375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종료)

